

여대생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성 미 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다양한 삶의 문제와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한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Park, 2000).

청년 후기 및 성인초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신체적으로는 성인 수준으로 발달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및 심리적인 면에서는 미성숙한 부분이 많다(Choi, 2001). 따라서, 대학생이 자신의 사회적 또는 물리적 환경으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는 심리적 과정으로서의 대학생활 적응문제는 발달상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Choi, 2001; Park, 2000).

대학생들이 불안정한 시기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즐거움이나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사고 대신 불안이나 후회 같은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Choi, 1999). 그러므로, 대학생이 대학생활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환경의 변화에 대해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여부는 학업적인 적응과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적응에 의해 결정된다. 학업적 적응은 성적, 학점관리가 취업과 연관되어 있고, 학업의 결과는 자신감이나 긍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성격특성으로 애착,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등이 이에 포함된다(Choi, 2001). 특히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거나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며,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이나 학업과도 관계 있다(Shim, 2004).

적응의 한 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관계를 연구한 Colvin, Block과 Funder(1995)는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심리적인 적응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Ko와 Kang(200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자기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나 조직화된 기대에 해당함으로써 개인의 애착체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이라고 가정하고(Jang, 1998), 애착과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자기와 관련된 표상을 살펴보는 연구들을 시도하였다.

Rice(1990)는 청년기의 애착에 대한 논문 28편을 분석한 결과에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적 적응사이에 일관성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애착과 적응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남성보다 여성들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크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000)의 연구와 중,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1997)의 연구

*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nursmh@inje.ac.kr)

에서도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애착은 모든 연령에 걸쳐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적응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는 기능을 한다. 청년초기에서 후기까지 애착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은 감소하고 또래에 대한 애착은 증가하고 이는 자아존중감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Yoo, 2003). 그러나, 대부분의 애착관계 연구가 부모애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개인의 애착 중 또래애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애착은 대학생활이라는 '낯선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기반'을 제공하므로, 대학생의 애착은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애착을 안전하게 형성한 대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대학생들보다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게 된다(Kenny & Donaldson, 1991; 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Kenny & Donaldson, 1991; Lapsley et al., 1990)를 보면, 부모와 또래애착은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재학생의 경우 또래애착은 사회적 적응과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Rice, FitzGerald, Whaley와 Gibbs(1995)의 연구에서는 애착이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교과과정에 대한 적응, 목표 달성, 자기 효능감, 학습기술과 훈련, 정신건강, 대인관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애착이 잘 이루어진 경우 대학생활에서 발달적, 적응적 도전을 잘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의 애착과 자아존중감(Jang, 1998; Lee, 2000), 대학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Park, 2000), 애착과 대학생활 적응(Choi, 2001; Rice et al., 1995), 대학생활 적응과 정신건강(Choi, 1999)등 이들 변수를 부분적으로 다루었을 뿐, 이 세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초기에 있는 대학생 중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에 있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대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부적응의 예방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대생들의 또래애착정도, 자아존중감 정도 및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파악한다.
- 2) 여대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또래애착정도, 자아존중감 정도 및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파악한다.
- 3) 여대생들의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 4) 여대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또래애착

유의미한 애착대상에 대해 대학생들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으로(Ha, 2001), 본 연구에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부모 및 또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부모 및 또래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중 또래애착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

자신이 개인을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며 유능한 존재로 믿고 느끼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평가(Coopersmith, 1967)로, 본 연구에서는 Coopersmith(1967)가 개인의 가치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3)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Cho, 2000)으로,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 (1984)가 다른 심리 적응 척도와 다른 보다 구체적인 면서 현재 대학생활과 관련된 적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K시에 소재한 I대학의 의예과와 간호학과의 1, 2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 전수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여대생 183명을 임의 표출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또래애착

또래애착 측정도구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중 또래애착정도를 측정하는 또래애착척도를 Ok (1998)이 번안,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또래애착 척도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서로 얘기하고 나의 판단을 믿어주는 것에 대해 묻는 "상호신뢰 차원" 10문항, 친구가 내 감정이나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지와 관련된 "의사소통의 질 차원" 8문항,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이해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소의 차원" 7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결코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으로 표기하는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으며, Ok(199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Coopersmith(1967)가 자신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를 Park(1993)이 번안,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자기비하 5문항, 타인과의 관계 7문항, 지도력과 인기 6문항, 자기주장과 불안 6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다'1점, '아니다'0점을 주는 2점 평정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Park(199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였다.

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측정도구는 Baker와 Siryk(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Kim(1992)이 번안,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총 67문항 중 기숙사나 하숙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3문항을 제외하여, 학업적 적응 24문항, 사회적 적응 14문항, 개인-정서적 적응 15문항, 대학환경에의 적응 11문항 등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 9점의 9점 평정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및 각 하부영역의 적응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며, 각 하부영역의 신뢰도는 학업적 적응이 .83, 사회적 적응 .70, 개인-정서적 적응 .78, 대학환경에의 적응 .81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6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와 해당학과 조교의 도움을 받아 강의실을 직접 방문하여 여대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질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가 질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한 질문지는 201부중 부적절하게 기재된 18부를 제외한 18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정도는 기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적응정도는 t-test, ANOVA 및 Duncan사후검정을 이용하였다.
- 3) 대상자의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 4)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6세(표준편차 1.26)로 20세 이하가 53.0%(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1-22세가 41.5%(78명), 23세 이상이 5.5%(10명)순이었다. 학년은 1

학년이 61.7%(113명), 2학년이 38.3%(70명)이었으며, 부모와 동거하는지에 대해 '예'라고 답한 경우는 41.0%(75명)이었으며, 자취나 하숙 등으로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는 59.0%(108명)이었다. 부모생존 여부는 양친이 모두 생존하는 경우가 95.6%(175명)으로 대부분이 양친이 모두 생존하였으며, 편모 또는 편부만 있는 경우는 4.4%(8명)이었다. 경제 상태는 평균 385.2만원(표준편차 256.6)으로 351만원 이상이 32.8%(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51-350만원이 31.7%(58명), 151-250만원이 29.5%(54명)이었다.

2. 대상자의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정도

대상자의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보면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또래애착 정도는 평균평점이 5점 만점에 3.6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평점 1점 만점에 0.63점으로 평균이상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나타냈다. 대학생활 적응정도는 평균평점이 9점 만점에 5.43점으로 평균정도를 나타냈으며, 각 하위변인별로는 가장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고 있는 변인은 대학환경에의 적응으로 평균평점이 6.32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적응수준을 보인 변인은 학업적 적응으로 평균평점이 4.86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보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subjects

	Mean(SD)	Minimum	Maximum
Peer attachment	3.69(0.46)	2.60	4.60
Self-esteem	0.63(0.21)	0.08	1.00
Adjustment to college life	5.43(0.79)	2.77	7.17
Academic adjustment	4.86(0.89)	1.96	7.58
Social adjustment	5.42(0.88)	2.21	7.79
Personal-emotion adjustment	5.13(1.04)	2.40	7.73
Institutional adjustment	6.32(1.25)	2.82	8.91

에 따른 또래애착 정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동거여부($t = -2.79, p = .00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한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분석한 결과, 경제상태($F = 4.39, p = .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Duncan 사후검정 한 결과에서 월수입이 351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 이하 경우보다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사회적 적응($F = 4.38, p = .005$), 개인-정서적 적응에서($F = 4.31, p = .000$), 대학환경에의 적응($F = 4.46, p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Duncan 사후검정 한 결과에서 월수입이 251만원 이상인 경우 15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사회적 적응정도가 높았으며, 250만원

이하인 경우 351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개인-정서적 적응정도가 높았다. 대학환경에의 적응 351만원 이상인 경우 15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적응정도가 높았다. (Table 3).

4.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r = .397, p < .01$), 전체 대학생활 적응($r = .256, p < .01$), 대학생활 적응의 하부영역 중 학업적 적응($r = .204, p < .01$), 사회적 적응($r = .234, p < .01$), 대학환경에의 적응($r = .509, p < .01$)과 순상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전체 대학생활 적응($r = .509, p < .01$)과 하부영역 중 학업적 적응($r = .358, p < .01$), 사회적 적응($r = .413, p < .01$), 개인-정서적 적응($r = .400, p < .01$), 대학환경에의 적응($r = .415, p < .01$)과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2> Peer attachment,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3)

Variables	Categories	n(%)	Peer attachment		Self-esteem	
			M(SD)	t or F	M(SD)	t or F
Age(years)	≤20	57(53.0)	3.68(0.49)		0.62(0.20)	
	21-22	76(41.5)	3.66(0.41)	1.714	0.64(0.20)	0.564
	≥23	10(5.5)	3.95(0.49)		0.68(0.20)	
Grade	1	113(61.7)	3.71(0.48)	0.925	0.61(0.20)	-1.636
	2	70(38.3)	3.65(0.43)		0.66(0.21)	
Living together	With family	75(41.0)	3.66(0.41)	-0.660	0.58(0.22)	-2.790**
	Without parents	108(59.0)	3.71(0.49)		0.67(0.19)	
Parents	Parents alive	175(95.6)	3.69(0.46)	0.076	0.63(0.21)	0.817
	Single parent or divorce	8(4.4)	3.68(0.53)		0.57(0.18)	
Economic status (won)	≤1,500,000	11(6.0)	3.62(0.47)	0.589	0.59(0.19)	0.711
	1,510,000-2,500,000	54(29.5)	3.72(0.45)		0.61(0.22)	
	2,510,000-3,500,000	58(31.7)	3.72(0.49)		0.63(0.18)	
	≥3,510,000	60(32.8)	3.63(0.44)		0.66(0.22)	

* p<.05 ** p<.01 *** p<.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subjects

	Peer attachment	Self-esteem
Self-esteem	.397**	
Adjustment to college life	.256**	.509**
Academic adjustment	.204**	.358**
Social adjustment	.234**	.413**
Personal-emotional attachment	.116	.400**
Institutional adjustment	.244**	.415**

*p<.05 ** p<.01

<Table 3>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183)

Variables	Categorie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ademic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Personal-emotional attachment		Institutional adjustment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Age (years)	≤20	5.45(0.76)		4.86(0.80)		5.43(0.86)		5.12(1.12)		6.37(1.17)	
	21-22	5.40(0.84)	0.12	4.80(0.97)	1.02	5.41(0.90)	0.16	5.15(1.00)	0.08	6.23(1.36)	0.41
	≥23	5.51(0.79)		5.23(0.98)		5.27(1.02)		5.01(0.57)		6.51(1.25)	
Grade	1	5.47(0.81)	0.76	4.97(1.26)	2.22*	5.43(0.93)	0.24	5.14(1.07)	0.11	6.33(1.28)	0.12
	2	5.37(0.77)		4.67(0.95)		5.40(0.80)		5.12(0.97)		6.30(1.22)	
Living together	With family	5.43(0.78)	0.05	4.91(0.87)	0.59	5.48(0.85)	0.81	5.04(1.09)	-0.91	6.31(1.18)	-0.09
	Without parents	5.43(0.81)		4.83(0.90)		5.37(1.11)		5.19(1.01)		6.33(1.30)	
Parents	Alive	5.43(0.79)	-0.01	4.85(0.87)	-0.45	5.41(0.87)	-0.52	5.13(1.04)	0.16	6.33(1.26)	0.51
	Divorce or widow	5.44(0.91)		5.00(1.23)		5.58(1.14)		5.07(1.15)		6.10(1.21)	
Economic status (10,000 won)	≤150	5.07(0.86) ^A	4.39**	4.39(1.09)		4.88(1.01) ^A	4.38**	5.09(1.11) ^B	4.31**	5.67(1.52) ^A	4.46**
	151-250	5.28(0.80) ^A	A<B	4.89(0.76)	0.89	5.17(0.94) ^{AB}	A<B	4.93(0.97) ^B	A<B	6.14(1.18) ^{AB}	A<B
	251-350	5.34(0.66) ^{AB}	A<B	4.75(0.79)		5.55(0.77) ^B	A<B	4.92(0.92) ^{AB}	A<B	6.15(1.16) ^{AB}	A<B
	≥351	5.72(0.83) ^B		4.98(1.03)		5.60(0.83) ^B		4.52(1.52) ^A		6.77(1.25) ^B	

* p<.05 ** p<.01 *** p<.001

5.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요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두고, 유의했던 경제상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5), 자아존중감, 경제상태가 대학생활 적응을 28.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또래애착정도는 평균 3.6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Choi(2001)의 연구에서 3.82점,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연구에서 3.75점을 나타낸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Papini, Farmer, Clark, Micka와 Barnett(1990)는 청년후기까지 부모에 대한 자기노출은 감소하고 친구에 대한 자기노출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Oh(1999)는 남학생은 집단으로 친구를 사귀며 여학생은 단짝 친구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또래애착이 여학생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Paterson, Field와 Pryor(1994)도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연령에 관계없이 또래에게 더 높은 애착을 나타냈다고 주장하였다.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평점 0.63점으로 평균이상이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 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000), Lee(2000)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o(2001)의 연구에서 평균이상의 높은 정도를 나타낸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또래애착정도가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Lee(1996)는 학교에서 또래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가 높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성숙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가 동거하는 경우보다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1997)의 연구에서 부모의 영향이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중요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환경적 변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청년기에 중요한 타인으로는 부모, 그의 가족, 교사, 또래집단, 주변의 성인들이 해당된다(Lee,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모와 별거하는 집단이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또래애착정도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부모와 별거집단이 동거집단보다 또래애착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발달특성 상 부모보다는 또래집단의 애착이 이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결과라 사료된다. 또한, Shim(2004)의 청소년기 애착은 부모의 일방적 권위를 지니는 아동기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며, 또래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이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주게 된다는 주장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평균평점이 5.43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2001)의 연구에서 5.34점, Lee(2000)의 연구에서 5.16점을 나타낸 결과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여대생인 것과 관련이 있는데,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의 차이에서는 대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가 많이 있다(Shim, 2004)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심리학자들이 자아존중감을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Park, 2000)을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도도가 높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평균평점 0.63점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분석한 결

(Table 5) Predictors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by using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Variables	β	R^2	Adjusted R^2	F	p
Self-esteem	.489	.259	.255	62.356	.000
Economic status	.186	.294	.286	36.81	.000

과, 월수입이 351만원 이상인 집단이 250만원 이하인 집단에 비해 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m(2004)의 연구에서 상위층에 사는 학생의 경우 학교적응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대학생활 적응여부는 학업적 적응과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적응에 의해 결정된다. 학업적 적응은 성적, 학점관리가 취업과 연관되어 있고, 학업의 결과는 자신감이나 긍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hoi, 2001). 따라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학업적 수행과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단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사전에 발견하여 장학금 등의 재정지원은 물론 개별상담을 통해 이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부영역인 학업적 적응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정한 결과,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적응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자의 또래애착 정도가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Lapsley 등(1990)은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냐에 따라 애착과 적응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학년이 높아지면 지적능력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외부의 압력이 누적됨으로써 또래애착형성의 기회가 줄어들고 학업적 적응에도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상자의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1997)의 연구결과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Oh(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각된 수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타인들에 의한 무조건적인 수용의 역할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하며, 이는 애착경험과 관련되는데(Yang, 2001), 청년기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타인은 일반적으로 또래집단이나 동년배로서 이들의 영향은 부모나 가까운 친구보다 훨씬 크며, 청년들이 동료에게 강하게 매달리는 이유는 자신들이 동료들에게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Kim, 1995).

또한, 대상자의 또래애착은 대학생활 적응의 하부영

역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및 대학환경에의 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2001)의 연구와 Lapsley 등(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부모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지원 조직의 형성,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관리 능력, 교수, 교수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포함시키는 것(Lee, 2002)으로, 사회적 적응의 주요 요소들은 대학에서의 사회적인 생활을 완성해 나가고, 지지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사회적 자유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들 수 있다(Cho, 2000). Mallinckrodt(1992)는 백인과 흑인 양쪽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할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 적응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부영역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및 대학환경에의 적응과도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Park(2000), Lee와 Jung(1999), Chartrand(1990)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 판단하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믿으며 인정하는 태도로 정의 내려지는 자아존중감은 대학요구의 적절한 대처 및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적 자원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들보다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문제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적응을 잘하고 만족할 수 있다(Park, 2000). 특히 대학생활 적응의 하부영역 중 학업적 적응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것은 Chartrand(1990)의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몰입 등의 요인들이 학업적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Lee와 Jung(1999)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식하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대학생들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대학생들보다 학업적 적응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체변수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

응은 자아존중감과 경제 상태에 의해 28.6% 설명되었다. 이는 Park(2001)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하며, 대학생활 적응 하위척도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적응을 더 잘하고,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의 34.1%를 설명하고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이 높은 대학생활의 적응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대상자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심리·사회적 발달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 Shim(2004)의 주장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한편, 또래애착이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변수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적응의 세 변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수와 유의한 관련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지만, 선행 연구들은(Cho, 2000; Choi, 2001; Rice et al., 1995)은 애착과 대학생활 적응 또는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을 단순회귀분석으로 분석하여 애착 또는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또한, 또래애착과 대학생활 적응의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 의미 있는 관계는 있었지만, 하부요인별 분석에서 개인-정서적 적응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상관계수가 0.3이하로 약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볼 때, 또래애착이 대학생활 적응의 일부분에 영향을 준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학 1,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Rice(1990)는 그의 연구(Choi, 1993에 인용됨)에서, 애착과 정서적 적응 사이의 관련성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학 1학년에서 두 변인간의 상관성이 가장 낮았으며, 대학 3, 4학년은 보통 정도의 상관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Lapsley 등(1990)의 연구결과(Choi, 2001에 인용됨)에서도, 신입생의 경우 대학생활 적응 중 학업적 적응에는 부모애착이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은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학생의 경우는 부모애착이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쳤고, 또래애착은 사회적

적응, 개인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인구학적 변수가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때,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인구학적 변수를 포함하여 이들 세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전체 대학생활 적응 정도에 대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또래애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또래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으며, 학과에서는 집단 활동 등을 통해 동료들과 접촉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줌으로써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경제상태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교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대학생활에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개별적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여대생들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인 대학생 183명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질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연구도구는 또래애착 측정도구,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대학생활 적응 측정도구 및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와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또래애착정도는 평균평점 3.69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평점 0.63점으로 높았다. 대학생활 적응정도는 평균평점 5.43점으로 평균정도였으며, 각 하위변인별로는 가

장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학환경에 의 적응으로 평균평점이 6.32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적응수준을 보인 변인은 학업적 적응으로 평균 평점이 4.86점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부모와 동거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정도는 경제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또래애착,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과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은 전체 대학생활 적응과 네 가지 하부영역 모두와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경제상태가 28.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결과에서 여대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는 자아존중감이 중요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또래애착이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서는 또래애착을 증진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다양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결과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References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 Youth Adolesc*, 16, 427-454.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 Couns Psychol*, 31, 179-189.
- Chartrand, J. M. (1990). A causal analysis to predict the person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nontraditional students. *J Couns Psychol*, 37, 65-73.
- Cho, S. J.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Choi, E. 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adjustment to college-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eneral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oi, S. M. (1999). *The relative study on adjustment to college and psychological status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China*.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Colvin, C. R., Block, J., & Funder, D. C. (1995). 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 and personality: Nega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 Pers Soc Psychol*, 8, 1152-1162.
- Coopersmith, S. (1967). *The adolesc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H. Freeman and Co.
- Jang, H. S. (1997). Relation among attachment,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adolescents. *J Res Human Development*, 4(1), 88-106.
- Jang, H. S. (1998). The mediating effects of ego image and self-esteem to attachment and hope. *J Res Human Development*, 5(1), 117-136.
- Kenny, M., & Donaldson, G. A. (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 *J Couns Psychol*, 38, 479-486.
- Kim, E. J. (1992). Academic adjustment and emotional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 Younsei Counsel*, 8, 85-114.
- Kim, K. J. (1995). *Development of ego*. Seoul: Muneumsa.
- Ko, H. J., & Kang, H. W. (2000). Value orientation,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J Student Guidance*, 14, 69-95.
- Ko, M. J. (2001). *The effect of REBT group counseling on the self-esteem, stress coping and life adaptation of the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 Couns Dev*, 68, 561-565.
- Lee, J. J. (2000).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attachment,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K. A., & Jung, H. H. (1999). Effects of stress, self - esteem and student - teacher relationship on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Korean J Couns Psychother*, 11(2), 213-226.
- Lee, M. R. (1996). *The study of variables related to self-esteem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Lee, Y. J. (2002). *The relationship among narcissistic personality, self-Efficacy,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Mallinckrodt, B. (1992). Childhood emotional bonds with parents, development of adult: Social competencies, and availability of social support. *J Couns Psychol*, 39, 453-461.
- Oh, S. H. (1999). *The relation among adolescents attachment, self-esteem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gang University, Seoul.
- Ok, J.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pini, D. R., Farmer, F. F., Clark, S. M., Micka, J. C., & Barnett, J. K. (1990). Early adolescence age and gender difference in patterns of emotional disclosure to parents and friends. *Adolescence*, 15, 959-1001.
- Park, E. M. (2000). *Relationship of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between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types and student'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E. S. (1993). *The effect of feminist group counseling on identify development, sex role characteristics, and adjustment of women's college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and friends. *J Youth Adolesc*, 24(5), 579-600.
- Rice, K. G. (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 Youth Adolesc*, 19, 511-538.
- Rice, K. G.,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bs, C. L.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 Couns Dev*, 73, 463-474.
- Shim, S. J. (2004).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level of peer attachment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여대생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

Yang, J. W. (2001). *The effect of attachment to parents on children's self-esteem and learning motiv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Yoo, B. K. H. (2003). *A relationship between child's affection and self respect, and school adapt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emale College Students

Sung, Mi Hae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Purpose: To consider how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is related to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Method:** The subjects were 183 female college students attending one university.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with the inventory of peer attachment-revised version, the self-esteem inventory, and the inventory for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according to residence typ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monthly income. There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er attach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all of the subscales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28.6% of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significantly explained by self-esteem and monthly income. **Conclusion:** Based on these findings, peer attachment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self-esteem which is itself a very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emale college students. Therefore, an alternative program designed to increase the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of female college students should be a planned program based on the study results.

Key words : Object attachment, Self-esteem, Social adjustment